

투어 번호
LKFWBJGB7K

스리랑카 할랄(이슬람) 투어 (7일)

7일 · 6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7일간의 프라이빗 투어는 스리랑카에 대한 여유로운 할랄 친화적 소개로 설계되었으며, 콜롬보의 도시 랜드마크, 시기리야 주변의 고대 동굴 사원과 바위 요새, 미네리야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그리고 식물원이 있는 언덕 도시 캔디를 다룹니다. 이동 속도는 여유로워서 여행객들이 관광지 사이를 서두르지 않고 섬의 문화와 유산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 하이라이트로는 콜롬보의 자미 울-알파르(빨강) 모스크 및 기타 식민지 시대와 시민 랜드마크, 담불라의 동굴 사원, 5세기의 시기리야 바위 요새, 미네리야에서의 코끼리 관찰 사파리, 샘물이 나오는 셈부와타 호수 방문, 캔디의 거리, 힌두 사원, 페라데니야의 왕립 식물원을 탐험하는 하루가 포함됩니다.

여행 내내 Lakpura® 운전 가이드와 함께 에어컨이 설치된 프라이빗 차량으로 이동하며, 가이드는 도착 시 여행객을 맞이하고 매일 목적지 간 이동을 담당합니다. 투어 일정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는 할랄 인증 숙박 시설과 식사를 예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최소 연령 제한이 없어 가족 및 혼합 연령대 그룹에 적합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콜롬보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Lakpura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콜롬보로 이동합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녁에는 시내를 둘러볼 시간을 갖습니다.



자미 울 알파르 모스크(레드 모스크)

콜롬보에서 가장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로, 7세기경 실론이 향료와 실크 교역로의 요충지였던 시절부터 아랍 상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콜롬보와 갈레 항구 주변에 정착한 이슬람 공동체의 후손들이 오늘날에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A.Savin · FAL



콜롬보 시내 투어

올드 등대, 구 국회의사당, 갈레 페이스 호텔과 갈레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 사원, 국립박물관 등 콜롬보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는 저녁 투어입니다. 독립광장 주변의 부티크 상점과 디자이너 매장을 둘러볼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Gihanud2001 · CC0

Day 2 콜롬보 → 시기리야

콜롬보에서 내륙 지역인 시기리야로 이동하며, 가는 길에 담불라 석굴 사원을 둘러봅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부터 이어져 온 석굴 사원 단지로, 고타마 붓다의 생애를 담은 고대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과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신성왕의 석굴과 대왕의 석굴, 대신원(Great New Monastery)을 둘러보며, 석굴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거대한 황금 불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3 시기리야

5세기 카샤파 왕이 건설한 바위 요새, 시기리야를 오르는 데 하루를 온전히 보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라이언 록(Lion Rock)으로도 알려진 이 요새는 거대한 사자 발 모양으로 장식된 계단을 통해 입장합니다. 오르는 길에는 유명한 색이 바래지 않는 벽화와 계단식 정원, 지금도 사용되는 저수조를 지나게 되며, 이어진 터널을 통해 정상에 남아 있는 궁전 유적에 다다릅니다.

Wrobell · CC BY-SA 3.0

Day 4 시기리야 → 민네리야 → 시기리야

시기리야에서 민네리야 국립공원으로 당일치기 야생동물 사파리를 다녀옵니다.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공원의 관목지와 숲을 가로지르는 3시간 사파리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건기에는 이곳에서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Great Elephant Gathering)'이라 불리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한곳에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시기리야 → 셈부왓타 → 캔디

시기리야에서 캔디로 이동하며, 가는 길에 셈부왓타 호수에 들릅니다.



셈부왓타 호수

마탈레 지역 엘카두와에 위치한 인공 호수로, 캠벨스 레인 숲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연 샘물로 채워지며 깊이는 약 9~12미터로 추정됩니다. 옆에는 천연 수영장이 있으며, 현재 이 호수는 엘카두와 플랜테이션 소유로, 인근 마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Sivanandhan Dishanthan · CC BY-SA 4.0

Day 6 캔디 → 페라데니야 → 캔디

캔디 식물원을 방문한 후 캔디 시내를 둘러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설립된 이 식물원은 광활한 부지에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 등 4,000종이 넘는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고 희귀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드는 가로수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포탄나무, 흔들리는 현수교, 작은 미로 정원 등도 볼거리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캔디 시내 탐방

캔디의 활기찬 거리를 걸으며 주요 기념물, 길거리 음식 노점, 화환을 만드는 장인들, 힌두 사원 등을 둘러보고, 마지막에는 짧은 삼륜차(툭툭) 투어로 마무리합니다.

Day 7 캔디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BIA)

아침 식사 후 여유로운 오전 시간을 보낸 뒤 체크아웃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throughout the tour.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